

프레이리의 ‘프락시스’와 『페다고지』의 현재적 의미에 관한 고찰

채희태(공주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요약

1968년 출간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는 교육 분야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고전 중 하나이다. 인류의 지적 결과물이 고전의 반열에 올라 후대에 전해지려면 고전이 쓰인 당대의 특수성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보편적 영향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은 다른 ‘지금’, 다른 ‘여기’와 만나 새롭게 창조되기도 하지만, ‘당시’, ‘그곳’의 특수성이 고집스럽게 지켜지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프레이리의 ‘프락시스’와 『페다고지』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Practice’의 어원으로 알려진 ‘praxis’를 이해함에 있어 프레이리가 이야기한 행위와 더불어 성찰을 병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양한 사상가들의 견해와 함께 살펴본 결과, 프락시스에 성찰적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아렌트였으며, 프레이리는 성찰(reflection)을 각성(awakening)과 혼재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페다고지』는 서로 다른 세 시기(1979년, 2002년, 2018년)의 대한민국과 만나 각기 다른 시대적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1979년 『페다고지』는 주로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의식화 교재로 사용되었다. 2002년에는 『페다고지』가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수용과 반대를 중심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페다고지』의 현재적 의미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전문성 중의 하나가 되어버린 교육의 참된 쓸모를 발견하는 것이다.

주제어: 프레이리, 페다고지, 프락시스, 성찰, 각성, 아렌트

I. 서론

프레이리(2018: 47)는 『페다고지』 서문에서 책의 저술 배경을 6년에 걸친 정치적 망명 생활 속에서 관찰한 결과라고 밝혔다. 프레이리는 1964년 브라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자 칠레로 망명하였고, 칠레 농업개혁연구소와 하버드대학 교육학 고문으로 있으면서 교육학

* 주저자: 채희태 (22608, 인천시 서구 가현로 41, 대원1차 202동 1601호, heetae88@gmail.com)

의 고전, 『페다고지』를 저술했다. 인류의 지적 결과물이 고전의 반열에 올라 후대에 전해지려면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전에 담긴 당대의 고민이 특수성이려면, 보편성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페다고지』가 교육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깃뚫힌 군부독재 치하에서 “피억압자로 하여금 억압의 세계를 드러내고, 프락시스를 통해 그 세계를 변혁(Ibid., 69)”하고자 했던 당대 프레이리의 치열한 고민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은행 저금식’ 속성을 간파한 프레이리의 통찰이 30년이 지나고, 또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페다고지』 30주년 기념판 서문을 쓴 마세두(Donaldo Macedo)는 아로노비츠(Stanley Aronowitz)의 말을 인용해 『페다고지』를 “시대와 저자를 뛰어넘어 당당히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프레이리, 2002: 11)”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1979년 처음 한국에 소개된 교육의 고전 『페다고지』는 2018년 50주년 기념판 출간에 즈음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희망의 페다고지』, 『프레이리의 교사론』, 『연대의 페다고지』 (이상 2020년 출간) 등 프레이리의 저작들이 연이어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프레이리의 교육 사상을 연구한 『교육, 문해, 그리고 인간화(피터 로버츠, 2021)』, 『파울로 프레이리 신앙·영성·신학(제임스 D. 키릴·로드릭 보이드, 2021)』, 『사랑의 교육학(안토니아 다더, 2021)』, 『교육과 민주주의(필라르 오카디즈 외, 2022)』 등도 출간되었다. 그리고 페다고지 30주년 기념판 해제를 쓴 심성보는 갈수록 답답해지고 있는 한국 교육 문제의 답을 프레이리에게 구하기도 했다.¹⁾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교육의 고전 『페다고지』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프레이리(2018: 106)는 『페다고지』에서 인간에게 고정성은 치명적인 위협이며,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더 지혜롭게 건설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의 목적도 현재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프레이리가 남긴 교육의 고전 『페다고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페다고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프레이리가 강조했던 ‘프락시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레이리(Ibid., 83)는 “단순한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성찰을 병행해야만 참다운 의미의 프락시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ractice(행위, 실천)’의 어원으로 알려진 ‘praxis’를 이해함에 있어 행위와 더불어 성찰을 병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것은 프레이리가 이야기한 프락시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 첫 번째는 “프레이리의 프락시스에서 행위와 성찰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프락시스라는 개념은 서양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

1) 심성보(2022). 『프레이리에게 변혁의 길을 묻다』. 살림터.

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왔다(이동수, 1999: 129).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장에서는 프레이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가들이 프락시스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 프레이리의 프락시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프레이리(2018: 106)는 『페다고지』에서 민중은 세계와 분리된 채, 현실과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운동의 출발점은 언제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페다고지』는 1979년²⁾, 2002년³⁾,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지금'과 달라진 '여기(대한민국)'에 소개되었다. 소개될 때마다 번역자와 출판사의 의도가 달랐고, 『페다고지』를 읽는 사람들의 맥락도 변했다. "참된 교육(Authentic education)은 'A'가 'B'를 위해, 또는 'A'가 'B'에 대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함께 행하는 것(Ibid., 116)"이라는 프레이리의 말처럼, 『페다고지』(A) 또한 '지금 여기(B)'를 위해서도, '지금 여기'에 관해서도 아닌, '지금 여기'에 변증법적으로 함께 존재할 때 고전으로서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질문은 "『페다고지』는 각기 다른 '지금 여기'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4장에서는 『페다고지』가 각기 다른 지금, 그리고 각기 다른 대한민국과 만나 어떠한 관계를 맺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페다고지』가 각기 다른 '지금 여기'와 만나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페다고지』뿐만 아니라 정보의 범람 속에서 갈수록 옹색해지고 있는 고전의 현재적 가치를 발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사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Praxis를 중심으로 한 철학적 논의들

프레이리는 『페다고지』에서 프락시스를 강조하는 동시에 매우 광범위한 철학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프레이리는 『페다고지』에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은행 저금식 속성을 들춰냈고(Ibid., 90), 교육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설명하였으며(Ibid., 69), 교육이 작동하는 방식으로써 대화를 강조했지만(Ibid., 120),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근본 개념은 '프락시스'라고 할 수 있다. 프레이리는 프락시스를 통해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성찰을 동반해야

2) 『페다고지』는 1970년대 중반부터 영문판과 비공식 번역본으로 은밀히 읽히다가 1979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통해 출간되었다. 성찬성이 번역한 최초의 『페다고지』 한글판은 검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민감한 내용을 뭉뚱그리고 주석도 누락시켰지만, 책은 출간된 바로 그날 급서로 지정되었고, 번역자 성찬성은 전격 구속되었다(최성일, 2011: 647).

3) 『페다고지』 30주년 기념판은 미국에서 2000년에 출간되었으며, 한국어판의 출간년도는 2002년이다.

한다(Ibid., 82)고 역설했다. 또한 프레이리가 주장한 프락시스의 목적은 세계의 변혁(Ibid., 68)이었으며, 나아가 프레이리는 프락시스를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존재론적 개념으로 보았다(Ibid., 125).

서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프락시스 개념은 프레이리뿐만 아니라 서양 정치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제적인 혹은 실천적인 철학을 강조한 이래 프락시스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정치사상에서 프락시스 문제는 주로 프락시스-테오리아(praxis-theoria)⁴⁾의 분석 틀 속에서만 논의되어 왔다(채진원, 2009: 280).”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록 그것이 프락시스와 테오리아의 일치를 지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아학과(Stoics)로부터 헤겔(G. W. F. Hegel)에 이르기까지 테오리아의 우월성이 강조되거나 혹은 마르크스주의, 실존주의, 실용주의, 분석철학과 같은 현대 정치철학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프락시스의 우월성으로 귀착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프락시스-테오리아 분석 틀 속에서만 프락시스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poiesis)⁵⁾의 관계를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Ibid.)”해 프락시스를 편향적으로 인식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락시스와 테오리아의 대결 구도 속에 포이에시스를 중속시키거나 유착시키는 편향에서 벗어나려면 프락시스와 더불어 테오리아와 포이에시스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레이리(2018: 109)는 성찰과 행동뿐만 아니라 ‘대화’와, 대화를 구성하는 ‘말’, 나아가 참된 말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까지도 프락시스와 일치시켰다. 프레이리가 언급한 ‘대화’, ‘말’, ‘일’ 등은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으로 분류하면 테오리아나 프락시스보다 포이에시스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레이리는 프락시스를 행위와 실천의 관점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테오리아와 포이에시스의 관계 속에서 이해했다. 프락시스, 테오리아, 포이에시스 사이에 존재해 왔던 케케묵은 경계와 위계를 허물어 내고, 프락시스를 변증법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총체적 개념으로 인식한 것이다. 2장에서는 프락시스와 테오리아, 그리고 포이에시스가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프레이리의 사상에 이르게 되었는지

4) 프락시스가 행위를 의미하는 practice의 어원이라면, 테오리아는 이론을 의미하는 theory의 어원이다. 아리스토텔레스(2022: 364-365/412)는 『니코마코스 윤리학(Nicomachean Ethics)』에서 인간의 활동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프락시스), 어떤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포이에시스), 지성의 활동인 “관조”(테오리아)로 구분했다.

5) 시를 의미하는 ‘poem’과 ‘poiesis’는 모두 ‘만들어진 것’, 또는 ‘창작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poema’에서 유래했다. 아리스토텔레스(2022: 321/412)는 『니코마코스 윤리학(Nicomachean Ethics)』 포이에시스를 행위 그 자체인 프락시스와 구분해 결과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렇게 제작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시인”(포이에테스)이 “시”(포이에시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양한 사상가들의 견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프락시스의 부상(浮上)

현대철학에서 삶의 능동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실천(praxis)'이라는 용어를 철학적으로 취급한 사람은 헤겔이었다. "헤겔은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다소 주변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프락시스를 세계와 주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고인규 외, 2012: 123)"했다. 이러한 헤겔의 프락시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 개념을 중심으로 세계와 삶, 그리고 역사를 인식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부각시킨 사람은 역시 마르크스(Karl Marx)였다(이학주, 2000: 203). 나아가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에 관한 11번째 테제에서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다만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theoria)해 왔지만, 문제는 그 세계를 변혁(praxis)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테오리아와 프락시스를 이분화하여 위계적으로 이해해 온 플라톤 전통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비판했다(채진원, 2009: 292)." 하지만 노동의 가치를 강조했던 마르크스는 프락시스를 목적론적으로 변형시킴으로 포이에시스와의 구별은 사라지게 되었다(이동수, 1999: 134).

마르크스에 이어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사르트르(Jean-Paul Sartre)는 프락시스를 포이에시스로 곡해하였고, 듀이(John Dewey)의 실용주의는 프락시스(그의 용어로는 action)를 그 행위를 실행하는 사람의 성장(growth)을 향하여 종사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으며, 포스트-비트겐슈타인(post-Wittgenstein) 분석철학자들은 주체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에 프락시스의 원인을 배타적으로 환원시킴으로써 프락시스를 수단화시켰다(Ibid., 134-135). 이동수(Ibid.)는 테오리아를 중심에 두었던 관념 철학에 반대해 프락시스를 앞세운 이러한 일련의 사상들을 '주관주의적 오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ia)』에서 프락시스와 테오리아 그리고 포이에시스를 인간 삶의 방식으로 구분하면서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를 시간성(temporality) 속에서의 행위라고 보았다(Ibid., 131)⁶⁾. 그리고 '존재와 시간'의 관계에 천착했던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마르크스가 유착시켰던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의 차이를 시간을 통해 분리해 설명하면서, 다른 현대 정치철학자들과 달리 프락시스를 단순히 테오리아와의 관계 속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포이에시스와의 구분 속에서 파악했다(Ibid., 136). 포이에시스가 일상적 시간에서의 행위인 반면 프락시스는 근원적 시간 즉, Dasein(현존

6) "테오리아는 변하지 않는(atemporal) 것에 관한 것이며,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는 시간성(temporality) 속에서의 행위이다(채진원, 2009: 282)."

재)⁷⁾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Ibid., 144)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동수는 하이데거의 프락시스를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포이에시스와 달리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체적이고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존재 그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열린 가능성의 행위’라고 보았다(Ibid.). 그리고 실천을 앞세운 마르크스에 의해 형성된 프락시스의 단단한 개념적 경계를 ‘열린 가능성’으로 규정한 하이데거의 논리로 유연하게 만든 후 성찰 개념을 도입해 설명한 것은 아렌트(Hannah Arendt)였다.

2. 프락시스에 성찰적 개념을 도입한 아렌트

아렌트는 “자신의 사상은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한 마르크스와 달리 ‘인간의 조건(human condition)’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한다며,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소유하고 있는가’보다 ‘인간이 어떠한 조건들 속에서 살고 있는가’에 주목(채진원, 2009: 285)”했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생각에 더해 프락시스를 불가역적(irreversible)이며 그 효과는 무한하고 예측불가능(unpredictable)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plurality)을 특징으로 하며 항상 손상받기 쉬운(frail) 것이라고 결론지었다(이동수, 1999: 144).

개인은 집단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집단은 개인을 명분으로 대상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아렌트(2019: 76/508⁸⁾)는 『전체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에서 다양한 인간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는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마르크스주의 내의 전체주의적 요소를 고찰하기 위한 기획에 착수했는데, 그 대규모 계획이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그 시도와 관련한 일련의 사상은 『인간의 조건』에 담겨졌다.

아렌트가 작업으로 명명한 활동인 ‘만드는 것’은 공예가가 원료를 강제로 자신의 모형에 맞추는 일이다. 원료는 이 과정에서 발언권이 없다. 또한 사람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거나 역사에 남을 일을 행하기 위한 원료로 주조되지 않는다. 자신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인격은 없기 때문이다. “지구 위에 살고 세계에 거주하는 것은 사람들이지 사람이 아니다.” 정치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인간의 다원성을 무시하는 일이고, 실천적으로는 개인들을 강제하는 것이다(아렌트, 2019: 77/508).

7) 현존재(現存在, 독일어: Dasein)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 특히 『존재와 시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그 존재가 존재하는 ‘현실’을 근거로 하여 이해되어야 한다(하이데거, 2008: 60)”고 주장했다.

8) 전자책(ebook)은 글자 크기에 따라 쪽 수가 바뀌므로 전체 쪽 수와 함께 표기하였다.

이처럼 아렌트가 프락시스에 성찰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 기존의 사상가들과는 다르게 - 집단(사람들)이 아닌 개인(사람)의 관점으로 프락시스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채진원(2008: 287)은 “인간 조건에 대한 성찰이 아렌트 정치사상의 출발점이라면,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원성이야말로 아렌트 사상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아렌트는 “인간의 다원성은 인간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며, 타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냄(to appear)을 통해 인간은 타인을 위해서(for other) 혹은 타인에 대항해서(against other)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with other) 된다(Ibid., 288)”고 보았는데, ‘함께’라는 개념에 관한 아렌트의 이러한 논의는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곳곳(프레이리, 2018: 61, 101, 116, 215)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함께’는 매우 일상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보편적인 단어를 프레이리가 주로 교육과 대화의 ‘수평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아렌트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처하는 인간의 역량, 즉, ‘합의’를 위한 전제로 보았다(아렌트, 2019: 85-86/508). 아래 <표 1>은 『인간의 조건』에서 아렌트가 사용한 ‘함께’와 『페다고지』에서 프레이리가 사용한 ‘함께’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함께(with)’에 대한 아렌트와 프레이리의 인식 차이

아렌트	프레이리
<p>“새로운 여러 계획들의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처하는 다른 방식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인간의 역량이다.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들은 신뢰성이 없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미래를 위해 의무를 떠안을 때 그들이 창조한 약속은 “불확실성의 바다” 속에 “예측가능성의 섬”을 던져 놓을 수 있다(아렌트, 2019: 85-86/508).”</p>	<p>“‘피억압자의 교육학’이라 명명한 이 책은,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부단한 투쟁 속에 있는 피억압자들(개인들이든, 민중 전체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확립해 나가야 할 교육학의 몇 가지 측면을 제시할 것이다(프레이리, 2018: 61).”</p>
<p>“세계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타자가 그 둘레에 앉은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듯이 사물의 세계도 공동으로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이(in-between)가 그러하듯이 세계는 사람들을 뗄어주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한다(아렌트, 2019: 142/508).”</p>	<p>“(교사와 학생 사이에) 대화 관계가 성립되면 ‘학생들의 교사’와 ‘교사의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고, 교사-학생인 동시에 학생-교사라는 새로운 관계가 탄생한다. 문제 제기식 교육에서 교사는 인식 대상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자신과 학생들이 ‘함께’ 성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프레이리, 2018: 101).”</p>
<p>“권력은 사람들이 말과 ‘행위(praxis)’를 통해</p>	<p>“문제 제기식 교육자의 역할은 학생들과 ‘함께’ 독사(doxa, 낮은 차원의 주관적 지식) 수준의 지식이 로고스(logos, 사색의 결과로 얻어</p>

<p>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의 공간, 즉 공문 영역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권력은 사람들이 ‘함께(with)’ ‘행위(praxis)’할 때 그들 사이에서 갑자기 생겨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순간 사라진다.” 정치적 ‘행위(praxis)’의 관점에서 규정된 권력은 한편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행위(praxis)’의 능력처럼 자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측과 복종보다는 ‘합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비위계적이다(아렌트, 2019: 469-470/508).“</p>	<p>지는 지식) 수준의 지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창출하는 데 있다(프레이리, 2018: 101).”</p> <p>“참된 교육은 ‘A’가 ‘B’를 위해, 또는 ‘A’가 ‘B’에 관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함께’ 행하는 것이다(프레이리, 2018: 116).”</p> <p>“지배 엘리트에게 조직이란 자신들이 조직되는 것을 뜻하지만, 혁명 지도부에게 조직이란 자신들과 민중이 ‘함께’ 조직되는 것을 뜻한다(프레이리, 2018: 215).”</p>
--	---

※ 『인간의 조건』에서는 ‘praxis’를 ‘행위’로 번역했다(아렌트, 2019: 103, 301, 365/508).

프락시스에 성찰적 개념을 도입한 아렌트의 프락시스가 프레이리의 프락시스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하지만 아렌트와 프레이리가 프락시스에 관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대의 프락시스에서 공히 성찰을 발견했을 수 있다.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사상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프레이리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프락시스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프락시스와 더불어 테오리아, 포이에시스에 덧씌워져 있었던 편향과 위계를 걷어내 『페다고지』를 관통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3장에서는 『페다고지』에서 행위와 성찰의 변증법적 관계로 인식한 프레이리의 프락시스에 관해 살펴보겠다.

III. 프레이리의 프락시스

1. 성찰 개념의 분화와 의미의 혼재

프락시스와 관련한 프레이리의 가장 큰 업적은 아렌트가 프락시스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성찰의 개념을 행위와 더불어 프락시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프레이리(2018: 82, 83, 109, 153, 157)는 프락시스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칫 성찰이 빠진 행동주의(activism)로 읽힐 수 있는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성찰을 강조했다. 하지만 군부

독재라는 물리적 억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때때로 프락시스의 무게중심은 성찰보다는 '실천'과 '행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행위가 확신의 결과라면, 성찰은 의심을 동반한다. 그리고 의심은 확신의 결과인 행위를 방해한다. 1979년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의식화 교재로 『페다고지』를 소개한 성찬성은 플레이리의 프락시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양가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성찰(reflection)'을 '사고', 또는 '고찰'로 번역해 소개했다.⁹⁾

해방 투쟁의 모든 단계에서 피억압자는 자신이 더 완전한 인간성을 찾는 존재론적 역사적 소명에 참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성찰과 행동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인간성의 본질과 역사적 형태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피억압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꼭 탁상공론적인 혁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성찰은 - 물론 참된 성찰의 경우이지만 -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상황이 행동을 요구할 때, 행동이 순수한 실천으로 간주되려면 그 행동의 결과가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 뜻에서 프락시스는 피억압자의 새로운 존재근거이다(플레이리, 2018: 83).

피억압자의 새로운 존재근거라고 주장한 플레이리의 프락시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찰, 즉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된 성찰은 자신을 의심하고 돌아보는 성찰(reflection)이라기보다는, 피억압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 계급적 - 상황을 깨닫는 '각성(awakening)'의 의미로 보인다. 그렇다고 플레이리가 프락시스에 포함된 성찰을 일관되게 각성의 의미로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아래 <표 2>에서 분류한 것처럼 플레이리의 프락시스는 상황에 따라 각성과 성찰 사이를 오간다.

<표 2> 프락시스에서 포함된 성찰의 의미 분류

	각성의 의미가 포함된 프락시스의 예	성찰의 의미가 포함된 프락시스의 예
기준	프락시스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억압과 피억압의 구조인 '계급'일 경우	프락시스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교육, 대화, 말 등의 '주체'일 경우
사용 예	“피억압자는 이 해방을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추구하는 프락시스 로써, 해방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쟁취하는 것이다(플레이리, 2018: 56).”	“단순한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성찰을 병행해야만 참다운 의미의 프락시스 가 될 수 있다(플레이리, 2018: 83).” “그러므로 교육은 언제나 프락시스 속에

9)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4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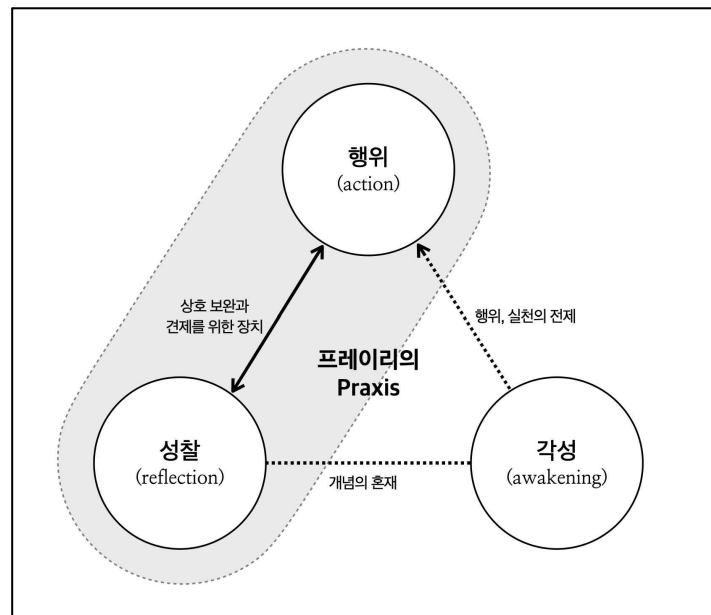
<p>“억압적인 현실은 인간을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구분한다. 후자는 진정한 연대감을 보이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과제로 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쟁의 프락시스를 통해 억압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한다(프레이리, 2018: 65).”</p> <p>“억압적 힘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길들여짐을 거부하고 공격해야 한다. 이것은 프락시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에 관한 성찰과 행동의 목적은 세계를 변혁하기 위해서다(프레이리, 2018: 65).”</p> <p>“조작, 구호, 저축, 통제, 명령은 바로 지배적 프락시스의 요소이기 때문에 결코 혁명적 프락시스의 요소가 될 수 없다(프레이리, 2018: 155).”</p> <p>“문화 혁명이 새 사회의 창조적 프락시스를 통해 의식화를 심화시킬 때, 민중은 옛 사회의 신화적인 흔적이 새 사회 속에 잔존하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며, 또한 그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될 것이다(프레이리, 2018: 193).”</p> <p>“의식화 덕분에 민중은 참된 프락시스를 통해 대상의 지위에서 벗어나 역사적 주체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프레이리, 2018: 194).”</p>	<p>서 재창조된다. 즉 존재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의 ‘지속’은 항구성과 변화라는 두 대립물의 상호작용 속에서 찾을 수 있다(프레이리, 2018: 106).”</p> <p>“말에는 성찰과 행동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 양자는 근본적으로 상호작용하므로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를 버리면 다른 하나도 즉각 손상된다. 프락시스가 없는 참된 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프레이리, 2018: 109).”</p> <p>“그러나 참된 말을 하는 것 - 그것이 일이며 프락시스다 - 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다. 따라서 그 누구도 자기 혼자만 참된 말을 할 수는 없으며, 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말할 권리를 빼앗은 명령적 행동은 할 수 없는 것이다(프레이리, 2018: 110).”</p> <p>“인간 행위는 행동과 성찰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곧 프락시스이며, 세계의 변혁이다. 인간 행위는 곧 프락시스이기 때문에 이론을 필요로 한다. 인간 행위는 이론과 실천이며, 성찰과 행동이다(프레이리, 2018: 153).”</p>
---	--

‘성찰’은 자신을 의심하고 돌아보는 행위이고, ‘각성’은 성찰을 통해 피억압자가 자신의 계급적 상황을 깨닫는 것이다. 프레이리의 프락시스에 행위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성찰의 의미가 ‘awakening(각성)’이나, ‘reflection(성찰)’이냐는 프락시스로 설명하려는 내용이 ‘계급’이나 ‘주체’냐에 따라 나뉜다. 프레이리는 주로 억압과 피억압의 구조인 계급을 설명할 때 프락시

스에 포함된 성찰을 각성의 의미로 사용했다. 덧붙여 프레이리(Ibid., 155-156)는 “피억압자가 혁명 과정에 참여하면서 변혁 주체로서의 역할을 ‘자각’해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억압자의 성격을 내면화한 모호한 존재로서 혁명에 참여한다면 혁명주의가 아닌 보복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여기에 쓰인 ‘자각(awareness)’은 오히려 ‘성찰(reflection)’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프레이리의 프락시스는 행위인가, 성찰인가?

프레이리는 프락시스를 행위와 성찰의 변증법적 관계로 인식했지만, 프레이리의 프락시스는 사실상 행위와 성찰, 성찰과 각성 사이에 애매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통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프락시스를 구성하는 행위와 성찰의 무게중심이 세계관에 따라 이동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아도르노(Theodor W. Adorno)가 칸트(Immanuel Kant)가 희망적으로 선언한 이른바 “계몽의 시대”를 “새로운 종류의 야만”이라고 진단한 것처럼(정진범, 2019: 160), 변증법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앞세워 행위와 성찰의 이동을 경직시키는 계몽적 태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프레이리의 프락시스 개념 도식화

위의 [그림 1]은 프레이리의 프락시스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프레이리(2018: 83)는 “단순한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성찰을 병행해야만 참다운 의미의 프락시스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프락시스를 구성하는 두 요소, 즉 행위와 성찰은 서로를 보완하는 동시에 견제하는 장치이다. 프레이리는 행동하지 않는 성찰은 탁상공론이며, 성찰이 빠진 행위는 행동주의라고 비판했다(Ibid., 109). 하지만 성찰(reflection)을 각성(awakening)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행위와 실천을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행위가 동(動)적이라면, 성찰은 정(靜)적이다. 프레이리는 -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 성찰의 개념을 각성과 혼재해 사용함으로써 행위와 성찰의 변증법적 관계, 즉 계급적 각성을 통한 행위와 실천의 전제를 마련했다.

프레이리의 프락시스와, 프락시스를 이루고 있는 행위와 성찰의 개념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각각의 개념에 유일무이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교조적으로 인식하는 태도 또한 위험하다. 마세두는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프레이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편향성을 담지한 ‘전문용어’로 인식해 비판하는 태도에 대해, 저술의 객관성과 명료성을 맹목적으로 무책임하게 요구하는 것은 실상 학술권의 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답론을 묵살하는 데 흔히 사용하는 유해한 기계론이라며 비판했다(프레이리, 2002: 24). 그리고 진보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세두의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렌트의 논의를 빌어 이야기하면,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프락시스적 태도는 전체주의를 경계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재 조건인 다양성을 바탕으로 ‘합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양성을 무시한 ‘합의’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고, ‘합의’를 목표로 하지 않는 다양성은 - 아렌트(2019: 297/508)가 오로지 행위 자체에서만 유래한다고 했던 - 드러냄을 포기하는 것이다. 프락시스의 행위적 요소가 합의라면, 개개인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적 요소는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과 합의가 동시적일 수 없는 것처럼, 프레이리의 프락시스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와 성찰 또한 동시적이지 않으며 끊임없는 운동의 과정 속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3. 프레이리의 프락시스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

프레이리는 프락시스를 테오리아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했던 헤겔이나 프락시스를 앞세워 실천적 행위를 강조했던 마르크스주의의 편향에서 벗어나 아렌트가 발견한 성찰을 도입해 행위와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인식했다. 뿐만 아니라 프락시스를 대화, 말, 일

등과 같은 개념으로 등치시키며(플레이리, 2018: 109) 많은 사상가들이 프락시스와 테오리아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했던 포이에시스와의 위계를 무너뜨렸다. 사실 지금처럼 억압과 피억압이 복잡하게 구조 속에 은폐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인해 플레이리 또한 - 그것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 성찰과 행위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변증법적 관계로 프락시스를 사용하지는 못했다. 프락시스 안에 행위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성찰은 때때로 스스로를 의심하는 성찰이 아닌 억압자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각성이었고, 성찰보다는 행위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이는 플레이리의 한계라기보다는 근대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리프킨(2015: 20)은 우리의 현실 인식 과정에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음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플레이리는 미래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는 근대적 세계관을 전제로 『페다고지』를 저술했다. 하지만 웨스트¹⁰⁾(2018: 45/652)가 물리학자 호킹(Stephen Hawking)의 인터뷰를 인용해 주장했듯, 현재 인류는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했던 20세기를 지나 불확실성과 복잡성(complexity)이 지배하는 세계관 속에서 살게 되었다. 행위는 세계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플레이리(2018: 67)의 말처럼, 플레이리가 마주한 근대적 세계관에서의 프락시스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는 탈근대적 세계관에서의 프락시스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더 적극적으로 다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플레이리는 군부독재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던 1968년 브라질에서 해방을 향한 프락시스의 무게중심을 성찰보다는 행위에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리(Ibid., 157)는 성찰을 통해 특정한 행동 형태의 불가능성이나 부적절함을 인식하는 사람을 무기력하다고 비판하는 대신 비판적 성찰 역시 나름의 행동이라고 설명하며 성찰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행위와 성찰, 성찰과 각성 사이를 오갔던 플레이리의 프락시스는 끊임없이 성찰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행위의 경계 안에서 회오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프락시스에 주는 시사가 적지 않다.

IV. 페다고지의 현재적 의미

본 장에서는 『페다고지』를 둘러싼 '지금'의 의미를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

10) 제프리 웨스트(Geoffrey West)는 복잡성 과학을 개척한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다. 첫 번째는 한국어판 『페다고지』가 처음으로 출판된 1979년이고, 두 번째는 30주년 기념판이 출판된 2002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주년 기념판이 출판된 2018년 즈음의 대한민국이다. 이를 통해 고전의 두 번째 조건인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는 『페다고지』의 보편성을 살피고자 한다. 다행히도 출판될 때마다 당시를 이해할 수 있는 서문과 해제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1979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협의회’가 출판한 최초 번역본에는 한국 가톨릭교회 초대 원주교구장인 지학순 주교의 추천사가, 30주년 기념판에는 마세두의 서문과 심성보가 쓴 “왜 지금 『페다고지』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해제가, 그리고 50주년 기념판에는 다시 마세두가 쓴 50주년 기념판 서문과 이라 솔(Ira Shor)¹¹⁾의 후기, 그리고 촘스키(Noam Chomsky)를 포함한 9명의 현대 학자들¹²⁾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 그렇듯, 고전을 해석하는 의미도 하나일 수 없다. 독일의 역사학자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은 『지나간 미래(Vergangene Zukunft)』에서 역사를 대하는 몽테뉴(Michel de Montaigne)와 보댕(Jean Bodin)의 상이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역사는 삶의 스승이라는 토포스의 오랜 생명력 자체가 시사해 주는 바는 이미 적지 않다. 두 동시대인이 범례로서의 역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몽테뉴에게 역사는 모든 일반화를 거부하는 것이었고, 보댕에게는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도록 해 주는 것이었다(코젤렉, 2007: 45).

몽테뉴와 보댕이 역사를 상이한 관점으로 대했던 것처럼 『페다고지』를 대하는 태도 또한 앞서 언급했던 고전의 두 가지 조건 - 특수성과 보편성 - 중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나뉠 수 있다. 누군가는 ‘지금 여기’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페다고지』를 참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당대에 국한되었던 특수성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페다고지』를 소환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한쪽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과 다른 한쪽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페다고지』를 대하는 상이한 두 태도는 얼마든지 상호 보완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이제 『페다고지』가 각기 다른 특수한 시대와 만나 어떻게 보

11) Ira Shor은 대표적인 프레이리언으로 미국 비판교육계를 이끄는 중심인물이다. 주요 저서로는 파울로 프레이리와 함께 쓴 『해방의 교육학A Pedagogy for Liberation』(1987)과 『역량 강화 교육 Empowering Education』(1992) 등이 있다.

12) 마리나 아파리치오 바르베란(Marina Aparicio Barberan), 노 촘스키(Noam Chomsky), 구스타보 E. 피쉬맨(Gustavo E. Fischman), 라몬 플레차(Ramón Flecha), 로널드 데이비드 글래스(Ronald David Glass), 발레리 킨로크(Valerie Kinloch), 피터 메이요(Peter Mayo), 피터 맥라렌(Peter McLaren), 마고 오카자와-레이(Margo Okazawa-Rey)

편성을 창조해 왔는지 살펴보자.

<표 3> 발간 시기별 페다고지 비교

	페다고지: 민중교육론	페다고지: 30주년 기념판	페다고지: 50주년 기념판
발간년도	1979년	2002년	2018년
출판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서울: 그린비	
번역자	성찬성	남경태	남경태·허진 *허진은 50주년 기념판에 추가된 원고만 번역
책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의 글: 지학순 주교 • 머리말: 리차드 소울 (Richard Shaul) • 저자의 서문 • 제1장 피압박자 교육의 정당성 • 제2장 은행저금식 교육과 문제 제기식 교육 • 제3장 자유의 실천으로서의 교육의 본질 • 제4장 대화와 반대화(反對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주년 기념판 발간에 부쳐 • 파울루 플레이리와 페다고지: 도나우두 마세두 • 머리말: 리처드 솔 (Richard Shaul) • 저자 서문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왜 지금 페다고지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심성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주년 기념판 발간에 부쳐: 도나우두 마세두 • 저자 서문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투쟁은 계속된다(페다고지 후기): 이라 솔 (Ira Shor) • 현대 학자들과의 인터뷰 • 1970년 영어판 초판 머리말: 리처드 솔

※ 책의 구성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두꺼운 글씨로 표시, 인명은 각 번역본의 표기를 그대로 적음.

1. 1968년 브라질과 1979년 대한민국

미국의 지원을 받은 '카스텔로 브랑코'는 1964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브라질 정권을 잡은 후 친미반공 정책과 외국 자본의 도입을 통해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 시기 브라질은 “브라질의 기적”이라고 불렸을 정도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1985년 문민정권이 부활하기까지 20여 년 동안 군부독재에 시달렸다. 이러한 브라질의 정치 상황은 1961년 박정희

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18년 만에 맞이한 민주주의의 봄을 1979년 신군부가 다시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의 겨울로 회귀시켰던 대한민국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1979년 성찬성이 『페다고지』를 번역해 한국에 소개한 이유는 - 1968년의 프레이리가 그랬던 것처럼 - 변혁운동을 위해 교육을 통한 민중의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페다고지』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시기는 1970년대 초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중 신학자였던 문동환은 1970년대 초반 한국신학대학교 교수직의 안식년을 맞아 미국 뉴욕의 유니언신학대학원에서 1년을 지내게 되면서 남미의 해방신학을 만났고, 해방신학과 사상적 맥을 같이하는 프레이리의 교육론을 접했다(홍은광, 2012: 133/238에서 재인용). 1960년대를 통해 한국 교회는 민중의 억압적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1968년 메델린 주교회의를 기점으로 민중의 구체적 문제에 대한 실천과 민중의 의식화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레이리 교육사상은 기독교 교육운동의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문동환은 1971년 12월, 기독교 간행물인 『세계와 선교』에 “파울로 프레이리 교육이론과 한국 교회”라는 글을 통해 프레이리 사상을 한국에 최초로 소개하면서 남미의 상황과 한국의 유사점을 비교하고, 프레이리 사상을 통해 교회와 기독교 교육의 지향을 새롭게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Ibid., 133-134).

『페다고지』는 1970년대 중반부터 영문판과 비공식 번역본으로 은밀히 읽히다 1979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협의회’를 통해 출간되었다. 성찬성이 번역한 최초의 『페다고지』 한글판은 검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민감한 내용을 뭉뚱그리고 주석도 누락시켰지만, 책은 출간된 바로 그날 금서로 지정되었고, 번역자 성찬성은 전격 구속되었다. 성찬성은 1986년 도서출판 광주를 통해 왜곡되었던 부분을 바로 잡고, 빠뜨린 주석을 되살린 완역판을 출간했다(최성일, 2011: 647-648).

프레이리가 프락시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았던 행동(action)과 성찰(reflection)은 사실 서로의 증폭보다는 제어를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프레이리(2018: 109)는 성찰 없는 행동은 행동주의(activism)로 빠질 수 있고, 행동 없는 성찰은 탁상공론(verbalism)일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프레이리(Ibid., 105)의 지적처럼 ‘미완성의 존재’인 인간이 성찰과 행동의 균형을 바로 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성찰이 깊을수록 행동을 주저하게 되고, 행동이 쌓일수록 성찰보다는 합리화를 좇는 것이 인간이다. 군부독재와 낯을 세우며 대립했던 1970~80년대는 개인의 ‘성찰’보다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자아비판’이 더 익숙했던 시기였다. 앞서 3장에서도 언급했듯 성찬성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reflection’을 ‘성찰’이 아닌 ‘사고(thought)’, 또는 고찰(analysis)로 번역해 소개했다.

<표 4> 프락시스에 대한 번역 비교

『페다고지』 30주년 영문판 (p.87)	1979년 성찬성 번역판 (p.75)	2002년 남경태 번역판 (p.105)
Action } word = work = praxis Reflection }	행동 } 말 = 일 = 行動定式 사고 }	행동 } 말 = 일 = 프락시스 성찰 }
Sacrifice of action = verbalism	행동의 포기 = 표현주의	행동의 부재 = 탁상공론
Sacrifice of reflection = activism	사고의 포기 = 행동주의	성찰의 부재 = 행동주의

‘reflection’에 대한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라기보다는 ‘의도’의 차이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의도’는 프레이리가 그랬듯이 당대의 요구와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프레이리가 『페다고지』를 저술한 목적에 관해 설명한 내용과 그 해석의 차이를 더 살펴보자.

<표 5> 『페다고지』 저술 목적에 대한 번역 비교

『페다고지』 30주년 영문판 (p. 48)	1979년 성찬성 번역판 (p. 31)	2002년 남경태 번역판 (p. 57)
“This book will present some aspects of what the writer has termed the pedagogy of the oppressed, a pedagogy which must be forged with, not for, the oppressed (whether individuals or peoples) in the incessant struggle to regain their humanity . This pedagogy makes oppression and its causes objects of reflection by the oppressed, and from that reflection will come their necessary engagement in the struggle for their liberation. And in the struggle this pedagogy will be made and remade(Freire, 2000: 48).”	“저자가 ‘피억박자들의 교육’이라 명명한 본서는(그들이 개인이거나 전체 민중이거나) 피압박자들을 ‘위해서’ for가 아니고 그들과 ‘더불어’ with 그들의 인간성 을 되찾는 부단한 투쟁으로 서서히 진척되어 나가야 할 교육의 몇 가지 단면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 교육은 피압박자들로 하여금 압박과 그 원인들을 고찰 하게 함으로써, 이 고찰 을 통해서 자신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필히 참가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투쟁 속에서 본 교육이 이루어지고 개조(改造)될 것이다(프레이리, 1979: 31).”	“‘피억박자의 교육학’이라 명명한 이 책은, 자신의 인간성 을 되찾기 위한 부단한 투쟁 속에 있는 피억박자들(개인들이든, 민중 전체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확립해 나가야 할 교육학의 몇 가지 측면을 제시할 것이다. 이 교육학은 억압과 억압의 원인들을 피억박자가 성찰 할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 성찰 로부터 피억박자가 자신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참여해야 할 필연성이 도출될 것이며, 또한 이 투쟁 속에서 이 교육학은 새로이 다듬어질 것이다(프레이리, 2002: 57).”

“In the incessant struggle”이라는 문장을 성찬성은 “부단한 투쟁으로 서서히 진척되어 나가야 할”로 번역한 반면, 남경태는 “부단한 투쟁 속에 있는”으로 해석했다. 같은 문장에 대해 성찬성이 의도적으로 『페다고지』의 저술 ‘목표’를 부각했다면, 남경태는 의도를 숨기고 단지 ‘상황’으로 서술했다. 프레이리가 ‘their’이라고 썼고, 성찬성이 ‘그들’이라고 번역한 ‘인간성’의 주체를 남경태가 ‘자신’으로 번역한 이유도 과거와 달라진 ‘지금 여기’에 프락시스의 무게중심이 행동(action)에서 성찰(reflection)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해를 덜기 위해 부연하자면, 이렇게 상이한 두 번역을 비교하는 이유는 맞고 틀림을 논하기 위함이 아니다. 번역으로 읽는 글은 번역가의 글이라고 이야기한 그로스먼(2014: 42)의 말처럼 번역은 또 다른 창작의 영역이다. 우리는 1968년 브라질의 특수한 배경에서 쓰인 『페다고지』가 1979년 대한민국이라는 또 다른 상황과 만나 그 시대, 그곳이 요구하는 필요에 반응하며 고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레이리는 혁명적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브라질과 칠레에서의 교육적 경험을 바탕으로 모택동, 마르쿠제, 파농, 데브레이, 체 게바라, 마르크스, 레닌, 카스트로 등의 혁명 이론에 의지하게 되었다(엘리아스, 1984: 76). 혁명을 꿈꾸던 진보적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은 프레이리도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변증법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페다고지』를 저술했다.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농경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프레이리에게도 혁명이 건설할 미래가 군부독재가 지배하는 암울한 현실보다는 더 나은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했을 것이다.

코젤렉(2007: 38)은 미래를 바라보는 진보의 특성 중 하나를 가속성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주의에 빠져 있던 청년 그람시는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자본론』에 반하는 혁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조향제, 1991: 109에서 재인용). 그람시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만약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면 봉건주의 체제의 러시아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했던 독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래를 단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인지는 보수와 진보의 오래된 논쟁거리이다. 역사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고 확신했던 근대의 진보주의자들은 억압받는 민중들을 하루빨리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혁명을 통해 미래를 앞당겨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프레이리의 사명은 『실천교육학(The politics of education)』에도 잘 드러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인식 없이 적용하고 있는 주어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도전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부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로서 제기된 주어진 상황은 『페다고지』라는 나의 최근의 책에서 언급한 확실한 실현 가능성, 즉 건설적인 미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프레이리, 1986: 199-200).

하지만 홍은광(2012: 212/238)은 프레이리의 영향을 받은 1980년대의 비판교육론이 원래의 지향과는 달리 '선전·선동'을 중심으로 학습자를 대상화하고 수동적 존재로 한정 지은 '좌파 엘리트주의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교육자-학습자의 관계에서 학습자의 주도성은 상대적으로 1980년대보다 1970년대 민중교육운동에서 더욱 강조되었다는 것이다(Ibid., 142/238).

2. 2002년 대한민국 교육과 『페다고지』

1968년 브라질(지금 여기)을 떠난 『페다고지』는 달라진 '지금(30년의 시간)', 다른 '여기(세계)'와 만나면서 다양한 오해와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페다고지』가 그만큼 교육 고전으로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마세두는 『페다고지』 3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프레이리를 대신해 그 오해들과 맞섰다. 첫 번째 오해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다른 세계관과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일부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에서는 『페다고지』에 나온 프레이리의 상세한 계급 분석을 무시해 버리는데, 학술적인 사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무계급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프레이리는 “피억압 집단을 지배의 논리에 묶는 물질적 억압과 정서적인 포위는 워낙 복잡하므로 단지 계급투쟁의 논리로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프레이리, 2002: 14).

이는 계급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한 근대적 사유와 계급에 대한 집착이 역설적으로 계급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탈근대적 사유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겠지만, 계급의 질과 양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적 사유가 주로 계급의 본질에만 집착해 왔다면, 탈근대적 사유는 계급이 만들어 낸 다양한 현상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프레이리 또한 계급은 여전히 억압의 여러 행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Ibid., 2002: 15), 마세두와 『이데올로기의 문제(Ideology Matters)』를 집필하며 계급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재구성해 나갔다(Ibid., 17).

두 번째 오해는 억압 경험의 차이가 만들어 낸다. 식민주의와 기타 여러 형태의 전체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사회에서는 프레이리를 선뜻 받아들였지만,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같은 이른바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라는 사회에서는 쉽게 프레이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프레이리, 2002: 17)는 것이다. 마세두는 제3세계를 비롯해서 전체주의 체제에 맞서 싸우고 있는 나라의

학생들은 비록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자유를 걸고 파울루 프레이리를 읽는 데 반해, 이른바 개방된 사회에서는 그의 저작이 ‘누락’이라는 보다 세련된 형태의 검열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Ibid., 18).

세 번째는 프레이리의 사상을 ‘소비’하는 비판적 교육학자들의 기계적 태도가 만들어 내고 있는 오해다. 많은 사이버 비판적 교육자들이 해방 교육학이라는 미명하에 프레이리를 구호로 삼아 그의 혁명적 정치학을 대화적 방법이라는 공허한 내용으로 제한해 버린다는 것이다(Ibid., 19). 마세두는 프레이리가 말한 대화식 교육을 잘못 해석한 교육자들은 경험을 문화 정책과 비판적 민주주의로 연결시키지 않음으로써 교육학을 중산층의 자기도취에 불과한 것으로 환원시켰다고 비판했다(Ibid., 20-21). 정윤경(2021)도 한국 사회에서 ‘의식화’와 ‘의식화 교육’의 의미는 ‘비판적 의식의 각성’이라는 의미와 다르게, 오히려 ‘편향된 사상의 주입’ 또는 ‘교화’의 의미로 사용돼왔다고 지적했다. ‘의식화’란 말이 한국 사회에서 프레이리가 의미하는 그것과 다르게, 특정 사상의 주입이나 교화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1970~80년대 한국의 사회적 배경 때문이며, ‘의식화’나 ‘의식화 교육’의 의미는 프레이리가 뜻하는 것과 달리, 편향된 사상의 주입으로 왜곡되었다고 본 것이다.

심성보는 2002년 발간된 『페다고지』 30주년 기념판 해제에서 “왜 지금 페다고지를 읽어야 하는지” 물었다. 변화의 가속도 위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발끝에 잔뜩 힘을 주며 살아야 하는 우리는 『페다고지』 30주년 기념판이 출간된 2002년의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000년, 세계는 새천년의 혼동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고하게 닳을 내리던 시기였다. 더불어 닷컴버블을 통해 실체화되지 않던 인터넷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독특한 광장 문화를 탄생시켰던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 밀레니엄의 가장 큰 특징으로 혁명의 실종을 꼽을 수 있다.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외쳤던 학생운동권은 -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 그 결과가 만들어 낸 민주 정부를 통해 미래의 정치권력을 준비하고 있었고, IMF로 인해 물러난 선배 세대들로 인해 ‘의도와 무관하게’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받게 되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과장이었는데, 과장으로 IMF를 만났거든요. 정리해도 대상이 아니에요. 부장급들이 주로 대상이었고, 각 회사에서 586세대들 위로 사라진 거예요. (이후에) 고도성장 시대가 한 번 더 오거든요. 그 시기에 짝짝 승진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화운동하고는 상관 없이 경제 때문에 생긴 일인데, 한 번 더 혜택을 봐요(KBS 시사기획 창, 2021/6/20, “불평등 사회가 586에게”, 13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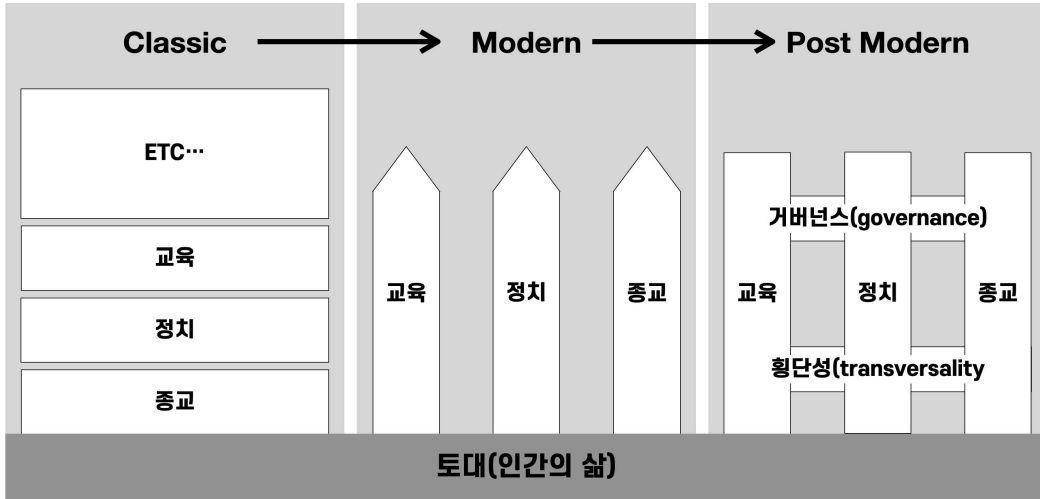
더 이상 『페다고지』를 현실 세계의 혁명을 위해 소환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보(프레이리, 2002: 222)는 2002년 여전히 『페다고지』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초보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정치·경제적 자유, 그리고 내적인 자유 등 보다 높은 차원의 진보적 자유는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물질적·정신적 빈곤이 여전하고, 폭력적 제도와 관행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은 『페다고지』를 다시 살려내고 있다(Ibid.)”며, 신자유주의와 결합해 오히려 더 단단한 포장지가 되어 버린 교육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전까지 『페다고지』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주로 정치적 의미에 있었다면, 밀레니엄을 지나며 경제적 의미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프레이리(Ibid., 237-238)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를 동질화하는 자유주의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자들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사상에서 교육의 대안을 찾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신의 대화식 교육에서 해방적 요소를 제거하고 방법론적으로만 이용한다는 것이다. 프레이리의 이러한 우려에 더해 심정보는 개인주의와 상대주의의 가치관의 팽배,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사상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배우고, 발전시켜야 할 현실적인 고전의 힘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Ibid., 239)고 강조했다.

3. 2018년 대한민국 교육과 『페다고지』

프레이리, 라이머(Everett W. Reimer)와 함께 비판적 교육 사상가로 알려진 일리치(Ivan Illich, 2020: 7)는 『전문가들의 사회』 머리말에서 자신의 지식을 사회 문제나 타인을 돕는데 쓰는 숙련되고 학식 있는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큰 존경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전문가들이 과연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타적인 의도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들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실제로 향상되고 있는지, 오히려 전문가들의 활동에 예속되어 오기만 한 것은 아닌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하나씩 횡적으로 쌓여왔던 다양한 전문성들은 근대와 만나 수직적 성격을 띠며 경쟁체제로 돌입했고, 이철(2015)이 루만의 『사회의 교육체계』를 소개하며 밝힌 바처럼 언젠가부터 “모든 체계(전문성)는 맹목적으로 자기(재)생산에만 몰두”하기 시작했다.

프레이리(2018: 69)는 이미 『페다고지』에서 해방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필요하고, 정치권력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는 제도 교육과 피억압자가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획을 구분해야 한다며, 근대에서 탈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전문성으로 분화되어 존재하고 있는 교육과 정치를 ‘의식’적으로 연결했다.



[그림 2] 시대에 따른 전문성의 변화

위의 [그림 2]는 시대에 따른 전문성의 역할을 도식화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전문성은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했지만, 근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성은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지키거나 확장하기 위한 수직적 경쟁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이미 익숙한 ‘거버넌스(governance)’와 아직은 낯선 ‘횡단성(transversality)’은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페다고지』 30주년 기념판에 ‘파울루 프레이리와 페다고지’라는 서문을 썼던 마세두는 50주년 기념판에도 변화된 현실에 맞게 ‘50주년 기념판 발간에 부처’라는 제목의 서문을 썼다. 마세두는 “프레이리가 『페다고지』를 저술한 목적을 피억압자 주변화에 책임이 있는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밝히고, 이해는 데 필요한 피억압자의 지식, 창의성, 부단한 비판적 성찰 능력을 일깨우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프락시스를 통해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Ibid., 10)”이라고 해석하며, “일부 자유주의자와 진보주의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억압 상황을 비난하면서도 애초에 억압적인 구조를 만든 지배 구조에 순응하는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비판적 담론을 배반했다(Ibid.)”고 비판했다.

프레이리가 『페다고지』를 저술했던 1968년과 출간 50주년을 맞이한 2018년의 상황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페다고지』 50주년 기념판 후기에서 이라 솔이 푸코(Michel Foucault)의 말을 인용해 언급한 것처럼 『페다고지』는 “사물, 제도와 실천, 담론의 거대하고 증식적인 비판 가능성”으로 유명한 시기, 교육계에서 학생 중심 접근법과 구성주의적 방법이 공세를 펼치던 시기에 등장(Ibid., 216)한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프레이리는 삶을 마감하기 직전까지도 『페다고지』가 달라진 '지금 여기'와 만나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기를 바랐다. 마세두는 프레이리가 세상을 떠나기 약 한 달 전 즈음인 1997년 5월 2일 프레이리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노숙자가 수천 명에 달하고, 어린이를 키우는 가족이 자동차나 다리 밑, 또는 미어터지는 쉼터에서 잠을 청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2만 7,000달러짜리 초콜릿 선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부를 과시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프레이리와 공동으로 맡은 수업의 목표였다고 회상했다(Ibid., 10-11). 또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카니발 같은 선거를 넘는 민주주의의 실체와 엄밀한 이데올로기 연구와 글과 세상을 읽을 때 이데올로기가 하는 역할 등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강조하지 않는 지식에 관한 이야기(Ibid., 11)는 프레이리가 무겁게 인식한 교육의 새로운 과제였다.

프레이리가 떠나고 없는 지금, 우리는 프레이리가 경험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지금 여기'와 만나고 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더 지혜롭게 건설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Ibid., 106)는 프레이리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프레이리는 1968년 군부독재 치하의 브라질에서 참된 교육을 고민하며 페다고지를 저술하였으며, 이전까지 행위와 실천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프락시스에 성찰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프레이리가 이야기한 성찰 안에는 각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프레이리가 『페다고지』를 저술했던 1968년 브라질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1979년 대한민국에서 『페다고지』는 주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위한 의식화 교육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30주년 기념판으로 소개된 2002년 대한민국은 개인주의와 상대주의 가치관의 팽배,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교육의 공세 속에 놓여 있었다. 50주년 기념판이 소개된 2018년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래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해방된 미래에 대한 낙관적 희망과 확신을 위해 쓰인 『페다고지』가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것이다. 과거와 달라진 '지금 여기'에서 교육의 고전 『페다고지』를 통해 참된 교육적 쓸모를 창조하는 것은 과거의 프레이리가 아닌 이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브라질의 교육 사상가이자 실천가인 프레이리의 프락시스와 프레이리가 남긴 교육의 고전 『페다고지』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프레이리는 프락시스를 통해 신화화된 현실 속에 숨겨져 있던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를 드러내고, 참된 인간화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를 변혁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깨달은 교육적 통찰을 『페다고지』에 담았다. 그리고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는 다양한 시대, 다양한 지역의 맥락 속에서 논의되고, 인용되고, 발췌되어 왔다.

프레이리가 자신만의 프락시스를 창조하기 위해 프락시스, 테오리아, 포이에시스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듯, 지금은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에 대한 경계를 걷어내고 위계를 무너뜨려야 할 시기이다. 민과 관, 마을과 학교, 어른과 아이, 남성과 여성, 나아가 진보와 보수 사이에 옳고 그름의 가치가 있고, 위와 아래의 위계가 있다는 인식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신화’이다. 모든 시대에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함께 존재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납’은 개별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보편적 진리인 연역을 도출하는 논리 전개 방식이다. 반대로 연역은 보편적 가설을 바탕으로 귀납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살핀다. 고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 또한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변증법적 관계로 인식할 때 고전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일찍이 독서를 반대했던 소크라테스(김청한, 2009)와 달리 그의 제자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박홍규, 2015 :67) 35권의 대화편과 13편의 서간을 남겼다. 플라톤의 저작들은 2,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양 사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심지어 화이트헤드(2003: 118)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플라톤 사상의 정수를 담은 『국가』가 아이러니하게도 마르크스(변상출, 2017: 258) 뿐만 아니라 나치(박홍규, 2015: 78)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 이러한 주장이 결코 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또한, 현재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입장을 떠나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프레이리, 2002: 237-238) 적어도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플라톤의 고전에 비견할 만하다 할 수 있겠다.

강일국(2015: 272)은 사람의 가치보다 경쟁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프레이리의 학습자를 위한 교육,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나아가 해방을 위한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1%도 안 되는 독점 집단에게 억압받고 있는 지금 부당한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프레이리의 교육 사상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라 술은 『페다고지』 50주년 기념판 후기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인용하고, 발췌한 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페다고지』가 가지고 있는 9가지의 비범한 매력을 소개하기도 했다(프레이리, 2018: 225).

프레이리(Ibid., 106)는 인간에게 고정성은 치명적인 위협이며,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더 지혜롭게 건설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프레이리가 고전뿐만 아니라 당대의 수많은 사상가들¹³⁾을 참조해 『페다고지』를 저술한 이유 또

한 '지금 여기(1968년 브라질)'를 이해하고 변혁하기 위해서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2023년 대한민국)'에 교육의 고전 『페다고지』를 소환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지금'을 무시하기 위해서도, 또 교육으로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여기'를 프레이리의 사상으로 계몽하기 위해서도 아닐 것이다. 50여 년 전 프레이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페다고지』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경쟁이라는 전문성에 빠져 '지금'과도, 그리고 '여기'와도 유리된 채 존재하고 있는 교육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더 지혜롭게 건설하기 위한 교육의 참된 쓸모를 '발견'하고 '합의'하기 위함이다.

프레이리가 『페다고지』를 세상에 내놓은 지 50여 년이 지났고, 한국어판으로 처음 번역되어 우리에게 소개된 지도 45년이 되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와 만나고 있다. 프레이리(Ibid., 67)의 말처럼 세계와 행위가 변증법적으로 긴밀하게 상호의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거의 『페다고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프락시스와 새로운 대화, 그리고 새로운 교육의 관점으로 『페다고지』를 읽어야 한다. 50여 년 후에 나올 『페다고지』 100주년 기념판에 프레이리가 쓴 본문은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그 앞뒤에 실릴 해제나 서문에 어떠한 내용이 실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할 수 있다.

13) 헤겔(Ibid, 62), 마르크스(Ibid, 65, 68, 125, 174), 루카치(Ibid, 67), 마오쩌둥(69, 116, 118, 166), 프롬(Ibid, 75, 86, 97, 98, 201), 마르쿠제(Ibid, 75), 파농(Ibid, 78), 멬미(Ibid, 79, 171), 핀투(87, 123), 보부아르(Ibid, 92), 샤프트르(Ibid, 96, 102), 니우어(Ibid, 98, 146, 161), 후설(Ibid, 104), 푸르터(Ibid, 115, 117), 코시크(Ibid, 125), 프레이어(Ibid, 126), 골드만(Ibid, 140, 159), 레닌(Ibid, 154, 221), 페트로비치(Ibid, 167), 알튀세르(Ibid, 192, 193, 194), 게바라(Ibid, 202, 205, 206), 부버(Ibid, 203) 등

참고문헌

- 강일국(2015). 프레이리 다시 생각하기: 존 엘리아스의 『프레이리와 교육』을 읽고. **교육비평**, 35, 272-279.
- 고인규, 최지연(2012). 헤겔과 마르크스 인식론에 비추어 본 실과 '실천'. **실천교육연구**, 18(2), 121-140.
- 박홍규(2015). 플라톤에 대하여. **인물과 사상**, 2(202), 63-80.
- 변상출(2017). 마르크스주의의 시선으로 읽는 플라톤의 '국가론'. **마르크스주의 연구**, 14(4), 258-283.
- 이동수(1999). 하이데거의 프락시스 해석: 프락시스의 시간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1), 129-147.
- 이학주(1990). 실천적 행위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24(1), 199-228.
- 조항제(1991). 그람시의 이데올로기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 **한국사회과학**, 13(1), 101-129.
- 정진범(2019). 계보학적 비판으로서의 『계몽의 변증법』 읽기. **철학**, 141, 145-175.
- 최성일(2011). **책으로 만나는 사상가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채진원(2009). 프락시스 관점에 있어서 아렌트와 마르크스 간의 횡단성. **철학사상**, 33, 275-306.
- 홍은광(2012). **파올로 프레이리, 한국 교육을 만나다**. 학이시습.
- Arendt, H. (2019).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역). 한길사. (원전은 1958년에 출판)
- Aristotle. (2022).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ka Nikomacheia*]. (박문재 역). 현대지성. (원전은 1894년에 출판)
- Elias, J. L. (1984). 의식화와 탈학교[*Conscientization and deschooling: Freire's and Illich's proposals for reshaping society*]. (김성재 역). 사계절. (원전은 1976년에 출판)
- Freire, P. (1979). 페다고지: 민중교육론[*Pedagogy of the oppressed*]. (성찬성 역).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원전은 1970년에 출판)
- Freire, P. (1986). 실천교육학[*The politics of education: Culture, power, and liberation*]. (김쾌상 역). 일월서각. (원전은 1985년에 출판)
- Freire, P. (2000). *Pedagogy of the oppressed: 30th anniversary edition*.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Inc.

- Freire, P. (2002). 페다고지: 30주년 기념판[*Pedagogy of the oppressed: 30th anniversary edition*]. (남경태 역). 그린비. (원전은 2000년 출판)
- Freire, P. (2018). 페다고지: 50주년 기념판[*Pedagogy of the oppressed: 50th anniversary edition*]. (남경태·허진 역). 그린비. (원전은 2018년에 출판)
- Grossman, E. (2014). 번역 예찬[*Why translation matters*]. (공진호 역). 현암사. (원전은 2010년 출판)
- Heidegger, M. (2008).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전양범 역). 동서문화사. (원전은 1927년에 출판)
- Illich, I., Zola, I. K., McKnight, J., Shaiken, H., Caplan, J. (2020). 전문가들의 사회[*Disabling professions*]. (신수열 역). 사월의책. (원전은 1977년에 출판)
- Koselleck, R. (2007). 지나간 미래[*Vergangene zukunft: Zur semantik geschichtlicher zeiten*]. (한철 역). 문학동네. (원전은 1979년에 출판)
- Rifkin, J. (2015). 엔트로피[*Entropy: A new world view*]. (이창희 역). 세종연구원. (원전은 1980년에 출판)
- West, G. (2018). 스케일[Scale]. (이한음 역). 김영사. (원전은 2017년에 출판)
- Whitehead, A. N. (2003).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 (오영환 역). 민음사. (원전은 1929년에 출판)
- 사이언스타임즈(2009. 7. 15). 왜 소크라테스는 독서를 반대했을까? <https://url.kr/lyrdta>에서 2023. 1. 17. 인출.
- KBS(2021. 6. 20). 시사기획 창: 불평등 사회가 586에게. <https://www.youtube.com/watch?v=v7MKTtUm0IM>에서 2023. 1. 17. 인출.
- 교수신문(2015. 12. 23). 끊임없이 확장하는 소통의 의미장... 루만의 '교육소통'이란?.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1930>에서 2023. 1. 17. 인출.
- 한국교육신문(2021. 2. 5). 프레이리(Paulo Freire)의 교육사상과 실천 2. <https://hangyo.com/mobile/article.html?no=93101>에서 2023. 1. 17. 인출.

- 논문 접수 2023. 11. 13 / 수정본 접수 12. 14 / 게재 승인 12. 25
- 채희태: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공주대학교에서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웹진 <평생학습e음>과 <교육언론창>에서 고정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거버넌스,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사회학과 교육학의 경계를 연구하는 것임.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 Meaning of Freire's 'Praxis' and
『Pedagogy』

Chae, Hee Tae(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1968 publication of Freire's "Pedagogy of the Oppressed" is one of the most widely read classics in the field of education. For a work to be considered a classic and be passed down to future generations as a product of human thought, its universality must extend beyond the specificities of its time and place, and have a universal influence. While the universality of a classic can be encountered by the different "nows" and "heres" to create new creations, the specificity of the "then" and "there" can stubbornly persis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mporary meaning of Freire's "praxis" and "Pedagogy of the Oppressed."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meaning of "praxis" as understood by different philosophers and thinkers, I discover that it was Arendt who first introduced the concept of reflective praxis, and Freire combines reflection and awakening in his usage of "praxis." Additionally, I confirm that "Pedagogy of the Oppressed" has been interpreted as having different temporal meanings in three different periods of South Korea's history (1979, 2002, and 2018). In 1979, "Pedagogy of the Oppressed" was used as a consciousness-raising textbook for anti-dictatorship democratization movements, while in 2002 it was mainly interpreted in terms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neoliberal education. The contemporary meaning of "Pedagogy of the Oppressed" in 2018 is to discover the true usefulness of education, which has become one of many specializations in our increasingly complex modern society.

* **Keywords** : Freire, pedagogy, praxis, reflection, awakening, Arendt